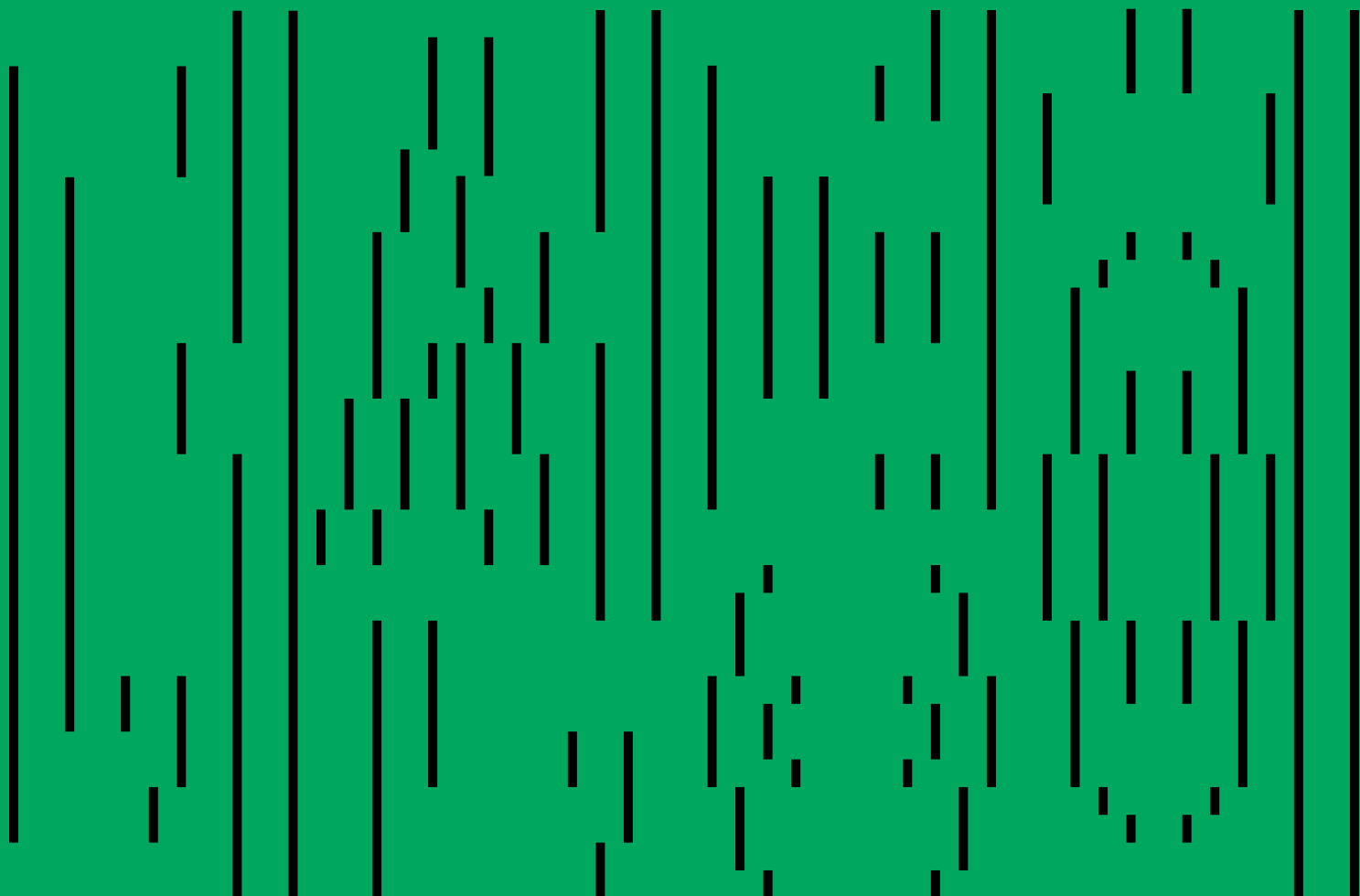


2018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보고서

더 가까이, 더 선명히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3년 1월 23일 민민·민관의 혁신적인 파트너십 모델을 바탕으로 설립된 거버넌스 기관입니다. 센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3년부터 성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 기반으로 추진한 사업과 사회적경제 조직, 협의체, 자치구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과 활동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과, 시민들의 참여와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전화 02-353-3553
팩스 02-383-3553
이메일 info@sehub.net
홈페이지 www.sehub.net
디자인 공영그래픽스튜디오

이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시 출처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의 내용 및 활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개	ⅴ	2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혁	ⅴ	4
더 가까이: 서울 사회적경제 이야기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주요이슈	24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35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주요행사	45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주요인물	52
더 선명히: 서울 사회적경제 성과보고	공공시장 확대지원	62
	민간시장 판로지원	64
	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	66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	68
	자치구 생태계 조성지원	72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74
	공동작업장 조성관리	76
	협력 네트워크 구축	78
	아카데미 운영	80
	인재양성 연수	82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84
	기획연구	86
2018 정산보고	ⅴ	88
자치구 지원조직 안내	ⅴ	90
협동허브 안내	ⅴ	91
오시는 길	ⅴ	92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그래서 서울 시민의 삶이 더 다채롭고 풍성해지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민관 거버넌스 기관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중앙부처의 개별적인 행정에 의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회적경제 부문별 조직들과 지원조직들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통합적 정책 환경 조성 및 사회투자, 공공구매, 윤리적 소비 등을 통한 기업과 시민 참여를 유도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정책 기획·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의 활성화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비전	목표	주요사업
서울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개발 시행 지원의 임팩트 극대화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의 확대를 통한 사업수행 효과 극대화 사업연합 활성화와 규모화를 통한 시민체감도 제고	<u>판로지원</u> 공공시장 확대지원 민간시장 판로지원 <u>경영지원</u> 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 외부자원 연계지원 <u>전략사업육성</u> 업종별 특화지원 신규 전략사업 개발 <u>지역협동기반조성</u> 자치구 생태계조성 지원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공동작업장 조성관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 <u>주체발굴/인재양성</u> 아카데미 운영 인재양성 연수 신규 주체 발굴 육성 <u>홍보 및 연구</u>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기획연구 및 연구지원



주체역량 강화

- 시민 체감형 사업 추진
- 협력네트워크 강화
- 핵심주체 육성
- 시민참여 확대



시장조성

- 공공조달 시장 확산
- 민간 시장 확대
- 상호 거래 증대

서울시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사업서비스 지원

- 성장단계별 컨설팅 지원
- 재무관리협동조합 육성
- 클러스터 공간 지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확산



자본연계

- 사회투자기금 운용
- 혁신형 기업 육성
- 거버넌스 강화
- 자조기금 육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혁

[illegible]











생활용 소재 라이브러리 Upcycling Material Library

생활 재활용 소재
Domestic Upcycling Material

고무와 피혁 Rubber & Leather

생활용 소재 라이브러리 Upcycling Material Library
생활 재활용 소재 Domestic Upcycling Material
고무와 피혁 Rubber & Leather 이어폰



생활용 소재 라이브러리 Upcycling Material Library
생활 재활용 소재 Domestic Upcycling Material
플라스틱 Plastic 16 17



생활용 소재 라이브러리 Upcycling Material Library
생활 재활용 소재 Domestic Upcycling Material
고무와 피혁 Rubber & Leather 고무줄



생활용 소재 라이브러리 Upcycling Material Library
생활 재활용 소재 Domestic Upcycling Material
고무와 피혁 Rubber & Leather 실리본 수세미



생활용 소재 라이브러리 Upcycling Material Library
생활 재활용 소재 Domestic Upcycling Material
플라스틱 Plastic CD



생활용 소재 라이브러리 Upcycling Material Library
생활 재활용 소재 Domestic Upcycling Material
플라스틱 Plastic 필기류



생활용 소재 라이브러리 Upcycling Material Library
생활 재활용 소재 Domestic Upcycling Material
고무와 피혁 Rubber & Leather 가죽 지갑



생활용 소재 라이브러리 Upcycling Material Library
생활 재활용 소재 Domestic Upcycling Material
고무와 피혁 Rubber & Leather 고무장갑



생활용 소재 라이브러리 Upcycling Material Library
생활 재활용 소재 Domestic Upcycling Material
고무와 피혁 Rubber & Leather 골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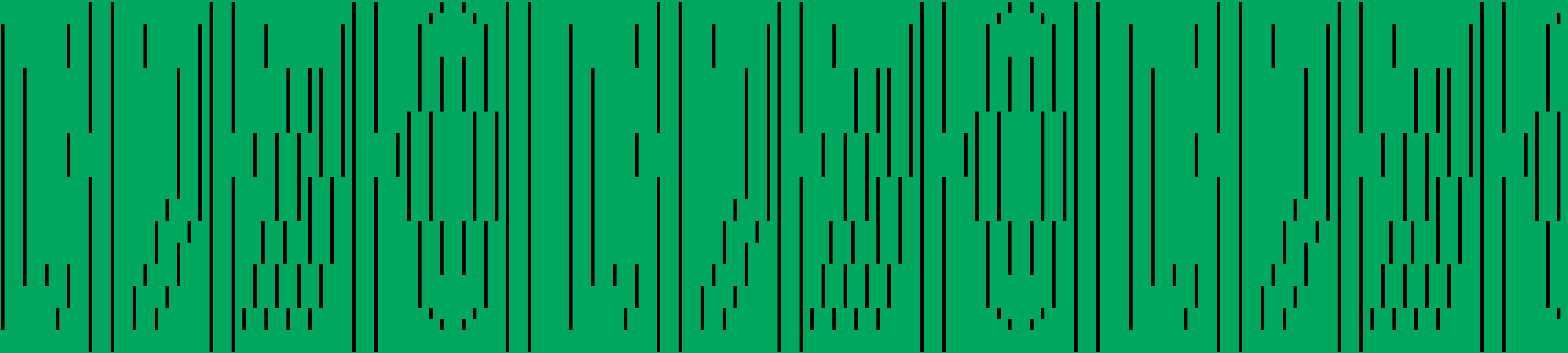
생활용 소재 라이브러리 Upcycling Material Library
생활 재활용 소재 Domestic Upcycling Material
플라스틱 Plastic 빨래집게



생활용 소재 라이브러리 Upcycling Material Library
생활 재활용 소재 Domestic Upcycling Material
플라스틱 Plastic 일회용 수저, 포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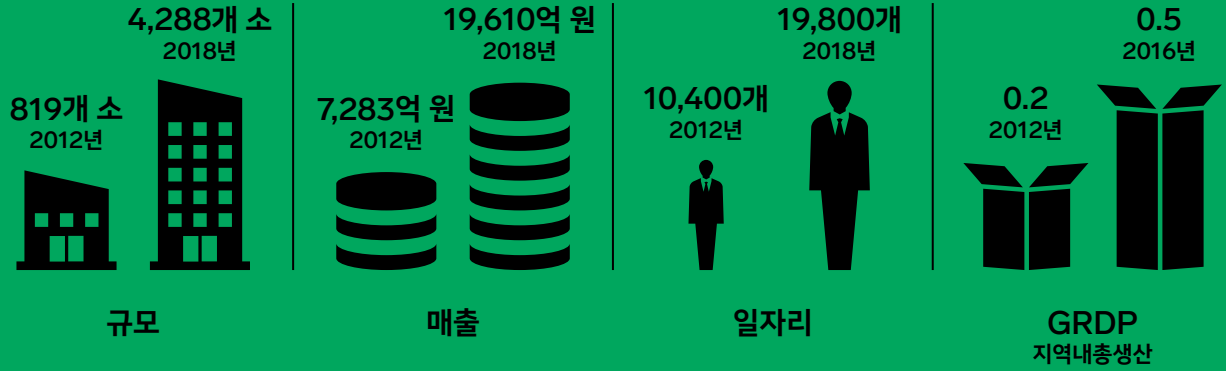


사회적경제는 시민 모두가 주인공인 모두의 경제, 사람의 경제입니다.
시민이 사회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창업가가 되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에 옮기는 윤리적 소비자가 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투자자가 되는 등 99% 시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는 모두의 삶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자조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협동경제 기반 마련 등 서울 사회적경제가 일궈낸 2018년 한 해의 변화와 가능성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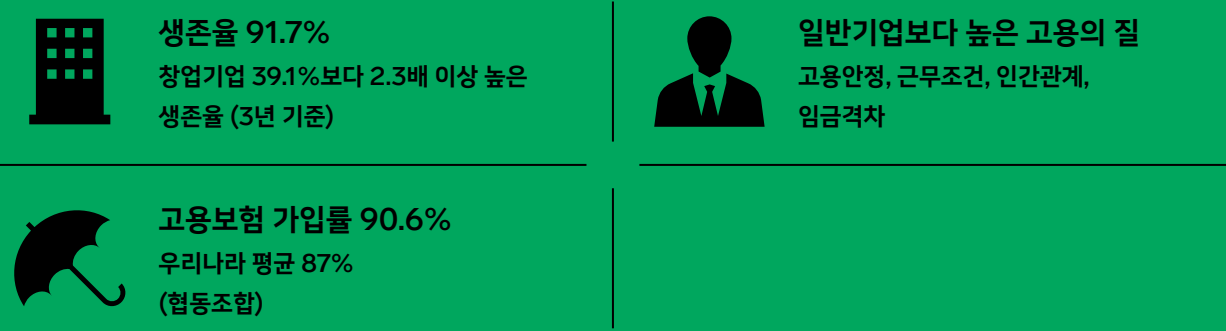


서울 사회적경제 성과

서울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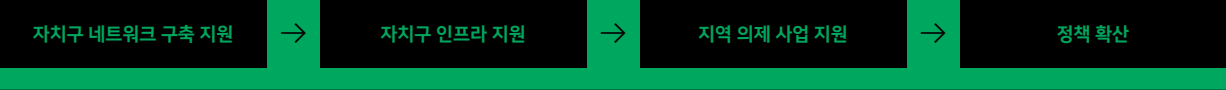
참 괜찮은 일자리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 정책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사례

노원구 되살림 사업연합 매장 5개에서 7개로 증가 가중률 10,173점에서 32,117점으로 증가 참여세대 827세대에서 1,730세대로 증가	은평구 빈집 사회주택 2014년 9월 공사 1호점 오픈 (6명 입주) 2017년 8월 공사 11호점 오픈 (100여 명 입주)	광진 돌봄 특구 돌봄기반공동영양단+서울공동모금회지원연계 2017년 417명, 4,218건 서비스 제공, 신규서비스 6건 개발 돌봄식당 170명(일 이용), 노인등록회원 1,000명 어르신 돌봄 통합바우처 개발 중 (광진구청)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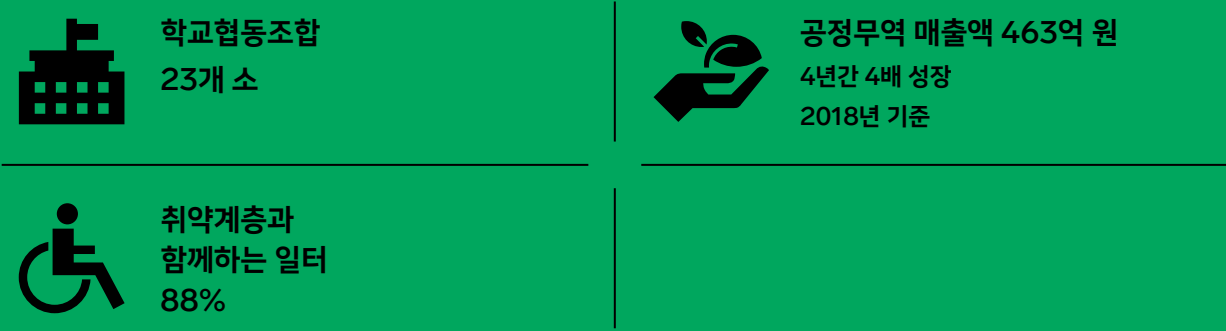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가치 실현



서울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사회투자자금



미래세대와 약자를 포용하는 서울 사회적경제



유일한 국제 사회적경제 플랫폼 GSEF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는 세계도시 시장, 국제기구 대표 및 사회적경제 리더들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유일한 국제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서울시 주도로 설립되었다. 2018년 9월 기준 43개의 지방정부와 해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등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현황



2018 서울사회적경제 주요이슈

모두의 경제, 사람의 경제,
사회적경제



2018년 서울은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연일 치솟는 부동산, 돌봄의 사각지대 증가, 여성 및 환경 문제 등 곳곳에서 터지는 사회문제에 시름하는 한 해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협력과 연대의 경제인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서울 사회적경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시민들이 삶 속에서 겪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경제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ISSUE 1. 더 강력해진 국제협력 'GSEF'

사회적경제 국제네트워킹 플랫폼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는 2018년 출범 5년째를 맞으며 서울시 주도의 세계 최대 국제협의체로 성장했다. 현재 43개의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GSEF는 2014년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2016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차 총회, 2018년 10월 1~3일까지 스페인 빌바오에서 3차 총회를 열었다. 뉴욕, 마드리드, 빌바오 등 전 세계 80여 개국 1,700여 명의 도시정부 대표와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사회적경제와 도시'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총회에서는 99:1의 불평등사회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의 가치가 담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가 강조되었다. 특히 지난 6년 간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며 서울 경제에 안착 중인 서울의 사회적경제 성과도 소개됐다. 포럼 기간 서울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빌바오시와 '우호도시협정'을 맺고 도시재생, 대중교통,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다. 센터는 GSEF 참가 후 스페인, 프랑스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둘러본 결과를 국내에서 공유하며 유럽의 사회연대경제에서 무엇을 배우고 적용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GSEF를 통해 사회적경제 간의 국제연대는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유럽에서 개최한 첫 번째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이자, 한발 늦게 사회적경제를 시작한 아시아 국가들이 변화의 주역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한 장이었습니다."

- 로렌스곽 GSEF 사무국장

ISSUE 2.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선 시민자산화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지역 땅값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시름이 커진 한 해였다. 특히 마을기업들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행한 임대보증금지원정책이 중단되면서 또 한 번 공간문제로 난항을 겪어야 했다. 서울의 대표 마을기업이었던 작은나무협동조합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공간을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설립한 지 10년이 넘은 문턱없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문턱없는밥집'도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 서교동에서 성산동으로 이전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공유공간을 확충하고 유휴공간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빠른 속도로 치솟는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공간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직접 공간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시민자산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시민자산화는 지역 자산을 다수가 공동 소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지역사회 전반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지역단체들이 함께 만든 '광진주민연대'가 건물을 구입해 공유공간 '나눔'을 운영하며 관심을 받았다. 성북구의 '터무니있는집'은 시민이 최소 100만원부터 출자해 목돈 없는 청년들의 주택 보증금을 내주었다. 임대료 상승으로 카페를 이전해야 했던 마포구 염리동의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도 지역의 다른 협동조합들과 함께 해빗투게더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역자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주성이 낮은 서울에서는 공간을 통한 관계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마을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이제는 시민자산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 박영민 우리동네나무그늘 협동조합 이사장

ISSUE 3.

자원순환 고민하는 사회적경제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구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한 해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정부는 8월부터 플라스틱 규제 강화에 나섰다. 사회적경제도 환경 및 자원순환에 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다.

생협들은 물품 포장재가 재활용되지 않고 과도한 쓰레기를 만든다는 조합원들의 지적에 따라, 포장재 줄이기, 병 재사용 운동, 우유상자 재활용 등 생활실천 운동에서부터 조합원 인식 개선, 포장재 전면 개선, 정부 정책 개선 요구 등을 조합원들과 함께 실천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노력했다.

서울 사회적경제조직이 입주해 있는 대표적인 공유공간들도 친환경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혁신파크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 0(zero) 캠페인'을 진행했고, 지난 11월에는 전기 없이 운영하는 '비전화카페'도 문을 열었다. 성수동 소셜벤처들의 집결지인 '카우앤독', '헤이그라운드' 등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일찍이 업사이클·리사이클 제품에 주목했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도 주목받은 한 해였다. 더불어 도시재생, 기후변화, 동물복지 등 '공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친환경 배변봉투, 커피 찌꺼기로 만든 화분, 멸종동물을 알리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등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주목받았다.

관련 행사도 늘어났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9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새활용 소재 중개 공간을 열었다. 1세대 업사이클 사회적기업인 터치포곳이 함께 운영을 맡았다. 노원구 사회적경제특구추진단은 '일상용품 자원순환체계 확립'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사업 과제로 설정했으며,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는 서울시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자원으로 바꾸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재활용 문제 때문입니다.”

- 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 연구소장

ISSUE 4.

서울 공정무역도시 인증

2018년 7월, 천만 인구 도시 서울시가 세계 최대 공정무역도시로 거듭났다. 2012년 5월 12일 세계공정무역의날 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정무역도시, 서울'을 선언한 지 6년만이다. 서울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제시한 '공정무역마을이 되기 위한 5가지 기준(▲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 공정무역 운영 위원회 구성 ▲ 공정무역 제품 사용 확대 ▲ 공정무역 시민인식 제고 ▲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대)'을 모두 충족했다.

서울시는 지난 6년 간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2년 11월에는 '서울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2013년 4월에는 공정무역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공정무역도시운영위원회'가 출범했다. 2013년 1월에는 시민들이 손쉽게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1층에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이 문을 열었다. 이 외에도 착한 밸런타인데이 캠페인, 공정무역 국제 심포지움, 공정무역 봄 강좌, 어린이도서관 공정무역 교실 등 공정무역 단체·동아리·활동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해왔다. 1년 중 가장 큰 공정무역 행사로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에 다양한 공정무역 단체들과 함께 진행되는 '세계 공정무역의날' 한국 페스티벌은 서울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전 세계의 60% 인구가
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공정무역
도시는 많지 않으니 서울이
아시아의 공정무역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 이강백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상임이사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조기금 조성 같은 자립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데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정열 서울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사장

ISSUE 5. 사회적금융 활성화

2018년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할 사회적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특히 정부가 2월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심은 더 커졌다. 여기에는 사회가치기금 설립 지원,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Certification)제도 도입, 보증 지원, 투자펀드 확대 등의 계획이 담겼다.

4월에는 사회적금융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신탁, 신용보증기금 같은 금융 공공기관들의 지원도 본격화됐다. 특히 3,000억 원 규모로 5년간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국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최대 자금 자원이 될 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은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주택, 에너지전환 등 사회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 융자 중심의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조성돼 현재까지 331개 기업에 817억원 규모로 융자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회투자 기금만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수요와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제 3섹터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센터에서는 시민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구성원 개인의 금융수요 및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칭)범제3섹터 서울시민공제조합'(이하 시민공제조합)을 준비 중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층(대리운전자, 프리랜서 IT기술자, 방문교사 등)의 사회안전망 보완재 역할, 영세 공제조합 간 연계 협력을 통한 규모화, 공제사업의 다각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민간 자조금융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11월부터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시민공제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ISSUE 6.

사회적경제로 푸는 공동주택 문제

서울시 전체의 86.8%인 246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센터는 이러한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문제(돌봄, 에너지, 쓰레기, 환경, 먹거리, 건강 등)를 제기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2018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하고, 지난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과 공동주택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참여 공동주택 단지 모집 후 지난 9월 1차 주민 워크숍을 통해 각 단지 내 공통적 생활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결과 아이 돌봄, 안심·건강 먹거리, 건강증진, 에너지 절감 등 문제점이 발굴됐다. 10월 2차 주민 워크숍에서 발굴된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참여 단지별로 전문 역량을 갖춘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총 9개 공동주택 단지의 참여가 확정됐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내년에는 사업 기간도 연장하고, 공고를 통해 참여하는 공동주택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도 늘려간다는 목표다.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경험이 하나씩 쌓이면서 주민들도 이웃과 함께할 때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P아파트 박연숙
임차인대표회의 감사



안정된 돌봄의 대안 '지역돌봄'

어느 때보다 보육시설 비리가 이슈였던 한 해였다. 안전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면서 사회적경제가 주도하는 지역돌봄이 다시금 주목받았다. 부모의 책임으로만 방치됐던 아이 돌봄의 영역을 공동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금천, 관악, 광진, 성동구는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인 '돌봄'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가며 사회관계망을 구축한 대표 사례다. 4개 자치구는 공통으로 지난 201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비 특구를 거쳐 2017년 정식 특구로 지정돼 2018년 3년 차 사업을 진행했다. 학생, 아이,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해 지역문제를 해결해왔다.

부모와 교사가 육아의 주체가 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들도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돌봄 모델로 성장했다.

또한 센터는 마을기업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의제에 기반한 마을기업 신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돌봄의 새로운 모델인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와
호흡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봄 공간을
확장해 학교 안팎의 아이들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 조정옥 금천구 사회적경제특구
사무국장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사회적경제로 공동주택 문제 해결 '같이살림 프로젝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서울시 전체의 86.8%인 246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돌봄, 에너지, 쓰레기, 환경, 먹거리, 건강 등 살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공동주택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 센터는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9개 프로젝트 중 '노인세대 건강과 공동체 강화'와 '아이 돌봄'을 주제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4곳의 사례를 소개한다.

아현동 P아파트, 노인돌봄&미세먼지 해결 두 마리 토끼 잡다

“나무 좀 봐! 정말 예쁘다.”
“그러게, 집에 가서 잘 키워봐야겠어.”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P아파트의 반려나무 나눔 입양 행사 현장. 종이 봉지 속 어린 나무를 받은 주민들의 표정이 밝다. 무슨 행사인지 몰랐던 주민들도 부스 앞을 기웃거리다 줄에 합류했다.

12월 1일, 단지 내 공터에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반려나무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한 줄로 서서 '반려나무 입양신청서'에 이름을 적고 종이봉지에 들어 있는 어린 '주목'을 받아갔다. '주목'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조경수로 인기가 높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행사가 시작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준비된 모든 나무가 동났다. 평소에도 주민 대상 행사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한다는 입주자 하수연 씨는 “받은 나무가 정말 예쁘다”며 “공기청정기 만들기 행사도 신청했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시간이 날 때마다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P아파트(661세대) 주민 워크숍에서는 '반려식물을 통한 노인돌봄'과 '비산먼지 해결'이 문제로 제기됐다. 재개발임대단지로 50세 이상의 주민이 전체의 55%를 차지해 노인세대의 건강한 생활과 돌봄에 대한 관심이 많은 데다, 단지 주변에 재건축 공사 현장이 있어 비산먼지(공사장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가 많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숲을 조성하는 소셜벤처 '트리플래닛'과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십년후연구소'가 사업에 합류했다. '트리플래닛'은 직접 농장에서 키운 어린 주목 240그루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한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나무와 숲의 역할을 알렸고, '십년후연구소'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DIY 은하수 공기청정기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다.

정민철 트리플래닛 이사는 “나무 키우기는 요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봄에 나무심기 행사를 할 예정인데, 오늘 참여한 분들을 초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P아파트에서는 12월 21일까지 1달간 매주 반려나무와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연숙 임차인대표회의 감사는 “각자 살기 바빠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게 도시 아파트 삶의 특징인데,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경험이 하나씩 쌓이면서 주민들도 이웃과 함께할 때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화 코디네이터는 “반려나무 입양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같이살림 프로젝트'와 사회적경제를 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공동체가 살아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농동R아파트, '안심 먹거리'로 청소년 간식 책임진다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R아파트는 '청소년 안심 먹거리 제공'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1월 8~9일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인 대연회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간식을 먹어볼 수 있는 시식회가 펼쳐졌다. 직접 구운 와플, 치킨, 떡볶이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간식 덕분에 8일 찾은 행사장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다. 아이들은 웅기종기 모여 앉아 음식을 입안에 오물거리면서 맛을 평가했다.

전농동R아파트의 주민 워크숍에서 제기된 생활문제는 단지 근처에 아이들이 먹을 만한, 건강한 간식을 파는 상점이 적다는 것이다. 단지 거주주민들은 맛별이 부부가 많아 하고 후 학원에 가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줄 여력이

없었고, 인근 지역에 건강한 먹거리도 부족했다. 주민 회의 결과 경력단절 여성이 참여하는 푸드 플랫폼 '김이백'과 청정 재료로 한식을 만드는 '소녀방앗간' 등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안심 먹거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딸과 행사장을 찾은 입주자 최순희 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사업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며 "음식들이 건강한 재료로 만든 데다 맛도 깔끔해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신채민 양(12)은 "마카롱, 와플, 치킨 같은 간식이 특히 맛있었고, 아파트에서 이런 행사를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농동R아파트에서는 12월 5일까지 약

4주간 아파트 상가 내 '마이비어'에서 두 기업이 참여하는 먹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간식을 함께 판매했다. 김이백이 속해 있는 소셜벤처 '후추컴퍼니'의 김희원 대표는 "동대문구 지역을 기반으로 교육, 문화 사업 등 활동을 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이 김이백의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대문R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종석 씨는 "우리 아파트는 700세대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30~40대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전농동 전체 주민 중 85%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다른 단지를 비롯해 동, 구 전체로 사업이 확대돼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응암동H아파트, 주민이 맡기고 돌보는 '공동 아이돌봄'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H아파트는 '손자·손녀 돌봄 어르신'을 위한 공동단지 내 공동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프로젝트 주제로 정했다. 11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4주간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내 30평(100㎡) 규모 세미나실에 공동 아이돌봄 공간을 조성해 운영했다. 14일 이곳을 찾았을 때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응암동H아파트 주민 워크숍에서 제기된 생활문제는 육아, 쓰레기, 주차, 휴식 공간 등 다양했지만, 육아 문제가 가장 큰 지지를 받아 선정됐다. 자식들 대신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단 1~2시간이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주변에 비슷한 서비스가 없어 '시간제 돌봄'을 필요로 했던 30~40대 젊은 엄마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세미나실을 돌봄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아이돌봄 전문 사회적기업 'YMCA서울아가야'의 컨설팅을 받았다. YMCA서울아가야의 조연대로 공간을 소독을 하고 매트를 깔고 놀이도구를 비치하니, 여느 어린이집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평일 오후 2~6시 전화나 아파트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후 취학 전 나이의 아동을 무료로 맡겼다.

아이를 돌봐줄 강사(5명)와 자원봉사자(15명) 역시 아파트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1~3주 차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마지막 4주 차에는 강사들이 나서 마술, 식재료놀이, 구연동화 등을 소재로 수업을 진행했다.

4살 손자, 6살 손녀와 방문한 주민 김옥자 씨(61)는 "1~2시간 아이들을 맡겨두고 시장에 가거나 커피 한잔을 마시는 등 잠시나마 나만의 시간을 쓸 수 있어 좋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김 씨는 "주민들이 자원봉사자여서 더 믿음이 가고, 여기에 와서 몰랐던 이웃들과 사귀고 육아에 대한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점도 좋다. 아이들도 이곳을 좋아해 프로그램이 지속됐으면 하는데, 유료로 전환되더라도 계속 이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대표 최문실 씨(61)는 "내가 손주들을 다 키웠는데, 그때 얻은 경험을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원했다"며 "독박육아에 시달리는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진정한 '상부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흥권 코디네이터는 "이용 주민들의 후기를 받고 있는데, 부모가 퇴근하는 저녁 7~8시까지 이용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며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내년 정식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코디네이터는 "그동안 아파트는 '투기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생활 공간'으로 생각이 바뀌면 거주 기간도 늘어나고 주민들 사이 공동체 활동도 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인 세대 48% 거주 청량리 H아파트, 중장년층 '헬스케어' 서비스



동대문구 청량리에 위치한 H아파트는 '단지 내 환경개선 및 고령자 건강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주민 워크숍에서 제기된 쓰레기 무단 투기, 어르신 건강 먹거리, 노인 운동 시설 부족 문제 등을 '같이살림 프로젝트'로 해결에 나선 것이다.

H아파트는 1997년 재개발로 지어져 20년이 넘는 공동주택이다. 610세대 중 291세대(47.7%)가 노인 거주자이고 주민 1,266명 중 401명(31.6%)이 65세 이상으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 노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근처에 노년층을 위한 체육 시설이나 복지회관, 스포츠 센터 등이 마땅치 않아 단지 내 여성복지회관 2층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 전문 소셜벤처 '헬스브릿지'가 힘을 더했다. 헬스브릿지는 55세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기구 운동, 식단·생활관리 등을 스마트 기기를 통해 종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13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12월 4일 H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안하늘 헬스브릿지 코디네이터는 "운동기구는 대부분 야외에 있는데 겨울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이용하기가 어렵고, 혈액 온도가 낮아지면 심장질환 등의 위험이 있어 실내 운동이 중요하다"며 "노인들을 위한 실내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파트 내부의 공간을 활용한다면 중장년층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코디네이터에 따르면 헬스장이나 공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동기구는 건강한 신체활동이 가능한 성인을 전제로 만들어 근력과 체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헬스브릿지는 일반 성인이 아닌 55세 이상 중장년층을 기준으로 운동기구를 개발해 부상 위험을 현저히 낮췄다.

헬스브릿지는 서울 광진구와 서대문구, 강원도 인제시와 양구시 등 4군데에서 센터를 운영해 중장년층의 건강 증진에 힘썼다. 엄미림 헬스브릿지 코디네이터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매개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친해져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더 큰 목표가 있다"며 "운동을 하면 애플리케이션 내 쌓이는 포인트를 모아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하게끔 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일과 8일 두 차례 주민설명회 후 10일에는 운동 장비를 들여와 주민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1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현장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기구 사용법과 운동법을 교육했다. 운동뿐만 아니라 식사 관리법 등을 제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들인다는 게 목표다.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70대 박인자 봉사회장은 "러닝머신 같은 기구는 너무 빨라서 노인들이 하기 어려웠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온다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운동을 하려면 저 멀리 복지관까지 가야 했는데, 가까이에 생겼으니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며 웃었다.

헬스케어 서비스 외에도 H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단지 내 환경 개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다. 외부인들의 쓰레기 투척 문제는 양심에 호소하는 문구를 적어 쓰레기장 앞에 붙이기로 했다.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 먹거리 문제는 달걀, 떡국떡, 김 등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식재료를 공동구매해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창래 코디네이터는 "H아파트는 앞서 텃밭 사업,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공동 김장사업 등에 참여해 마을 공동체 경험이 많은 단지"라며 "이번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통해 일정한 성과가 생긴다면 근처 아파트 단지,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시민 체감도 높아지길... 공동주택 생활문제의 해결 기대”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인성환 서울시사회적지원센터 지역지원팀장은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많이 성장했지만 시민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이 삶 속에서 겪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면서 “특히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기존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단지 내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2월에는 단지별로 프로젝트의 과정을 평가해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반영했다. 2018년보다 사업 기간도 연장하고,

공고를 통해 참여하는 공동주택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도 늘려간다는 목표다.

인 팀장은 “서울에만 4,300여개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이중 10~20%에서 삶의 방식이 변화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처음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진입해 생활문제를 함께 해결해보고, 이후에는 주민들이 그 방식을 이어받아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는 스스로 발굴하는 등 단지가 사회적경제로 선순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주요행사

연대와 협력의 글로벌 구심점
‘2014~2018 GSEF’

↘ GSEF는 세계도시 시장, 국제기구 대표 및 사회적경제 리더들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유일한 국제네트워킹 플랫폼이다. 2018년 기준 43개의 지방정부와 여러 해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2014년 서울시 주도로 설립해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2016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2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2018년에는 빌바오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출범 5년째를 맞이한 GSEF가 사회적경제 분야의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안착하기까지 달려온 길과 성과를 정리해 보았다.

[GSEF 빌바오 2018] “99:1 불평등사회 사회적경제로 해법 찾자”

빌바오는 1970년대 이후 중공업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면서 쇠퇴한 공업도시였다. 지역재생사업으로 화려한 문화도시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도시로 평가받으면서 이번 GSEF 개최지로 선정됐다. 특히 빌바오가 속한 스페인 바스크는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유명하다. 후안 마리아 부르토 빌바오 시장은 개회식에서 “쇠퇴했던 철강업 도시 빌바오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일구고 여러 협동조합을 통해 여성, 장애인 등이 함께 성장하며 이익을 나누는 사회적경제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시민들을 위한 대안적인 성장과 고립되지 않는 시민 행복을 위한 연대의 길에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총회에서는 99:1의 불평등사회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의 가치가 담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해법으로서 사회적경제가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가치와 경쟁력은 무엇인지도 함께 논의되었다. 바스크 사회적경제연합회의 로사 라빈 회장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투자를 많이 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형태를 만들겠다”며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더 포용적인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 전체 세션에서는 지난 6년 간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며 서울 경제에 안착 중인 서울 사회적경제 성과도 소개됐다. 서울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일반 시중에서 대출이 어려운 196개 사회적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물품 전용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구매를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 새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4.3배(882개→3,832개), 일자리는 1.7배(10,400명→17,400명), 공공구매는 2.3배(500억 원→1,157억 원)로 성장했다.

또한 포럼 기간 서울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빌바오시와 ‘우호도시협정’을 맺고 도시재생, 대중교통,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다.

[GSEF 몬트리올 2016]

'사회연대경제' 강조, C.I.T.I.E.S 출범 약속

'GSEF 2016' 총회는 2016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됐다.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구로써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다.



“대륙, 국가 중심이 아닌 ‘시’ 중심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녹색 골목, 기후 변화 등의 환경문제나 저소득층 주거, 가난한 예술인 지원 등의 빈곤문제 같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연대가 중요하다”

- GSEF 2016
공동주최자 드니 코데르
몬트리올 시장

2016 행사에서 선포한 '2016 몬트리올 선언문'에서는 '사회연대경제(Social Solidarity Economy)'가 강조됐다. 사회연대경제는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경제와 사회, 도시 발전을 위한 운영에 협동조합, 공동체기업, 사회적기업 등 시민 중심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경제개발 모델이다.

또한 서울시와 몬트리올시, 몬드라곤시는 이 총회에서 각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활동가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중심기구인 '사회연대경제의 국제적, 섹터 간 전수를 위한 센터(Centre International de Transfert Intersectoriel en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약칭 국제지식전수센터(C.I.T.I.E.S)'의 출범을 약속했다. C.I.T.I.E.S는 세계 각국의 사회적경제 모범사례와 관련 지식을 확산하며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GSEF의 실행력을 높여주는 단체로 몬트리올에 위치하고 있다.

[GSEF 2014]

GSEF 헌장 채택, 서울시 의장도시로 선정

13개국 18개 도시, 18개국 43개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진행된 'GSEF 2014'는 세계적 위기 및 지역사회 문제를 국제협력으로 푸는 데 거점이 될 사회적경제 국제기구 창립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포럼이었다. 초대 의장 도시로 서울이 선정된 것은 물론, GSEF 2013에서 발표한 서울선언의 정신을 계승·발전한 GSEF 헌장을 채택하며 협의체를 발족했다. GSEF 헌장은 총 5장 11항으로 구성되어 GSEF의 정체성과 비전, 미션과 목표, 회원규정, 조직구조, 재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한국 YMCA 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에서 채택된 헌장에는 지역문제와 지구적 위기 해결을 위해 지역 간, 그리고 민관 협력이 우선이며 주요 전략은 사회적경제라고 정의되어 있다"며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전세계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이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GSEF 2013]

주체들 한자리에 모여 창립 결의 '서울선언문' 발표

GSEF 출범의 포문을 연 첫 행사는 2013년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시민청 등에서 국내외 130여 개 단체를 비롯하여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 볼로냐, 퀘벡 등 8개 도시와 상티에, 로컬리티, 그룹 SOS 등 9개 민간단체가 함께 작성한 서울선언이 채택되면서 창립을 결의하는 의미 있는 장이었다. 서울선언은 현재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10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포럼에서는 우호적 협력협정과 협업사업 제안을 통한 국제적 민관협력이 추진됐다. 서울시는 이탈리아 볼로냐시와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상호 경험 및 선진사례 공유를 위한 우호적 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또한 캐나다 퀘벡의 대표적 사회적경제조직인 '상티에', 연구기관인 콩코디아 대학 '칼폴라니연구소'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2013-2018 GSEF가 걸어온 길]

GSEF 2013
(국제사회적경제 포럼)
2013.11.5~7
서울

- ▽ 서울선언문 발표
- ▽ 볼로냐, 상티에, 칼폴라니연구소 MOU 체결



GSEF 2014
(GSEF 창립총회)
2014.11.17~19
서울

- ▽ 초대 의장도시 선출
- ▽ GSEF 헌장 채택
- ▽ 차기 개최도시 선정
- ▽ GSEF 사무국 서울 유치



GSEF 2016
(몬트리올 포럼·총회)
2016.9.6~8
몬트리올

- ▽ 몬트리올 선언문 발표
- ▽ C.I.T.I.E.S 창립 결의
- ▽ 의장도시 연임 결정
- ▽ 차기 개최도시 선정



2017 아시아 정책대화
2017.7.1
서울

- ▽ 주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시아 사회적 정책 디자인'

2018 아시아 정책대화
2018.7.6
서울

- ▽ 주제 '도시와 사회적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 강화'



GSEF 2018
(빌바오 포럼·총회)
2018.10.1~3
빌바오

- ▽ 차기 개최도시 선정
- ▽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및 빌바오시와 '우호도시협정' 체결



"서울시,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서 역할해 나갈 것"

서울시가 의장도시를 역임하는 등 창설을 주도해 성장해오면서, 출범 5년 만에 명실상부한 국제회의로 안착한 GSEF 차기 총회는 2년 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민간 사회적경제조직과 지방정부 간 국제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발전과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GSEF. 더 큰 발전을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구체적 노력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창립 이후 GSEF는 사회적경제 관련 유일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다른 정책을 연구하고 공유·협력해 왔다. 이제는 GSEF가 단순 협의체를 넘어 도시·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글로벌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더 많은 도시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거듭나도록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

- 박원순 서울시장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주요인물

경쟁을 넘어 협동으로,
함께 꾸는 꿈



기대

"제 꿈은 혁신적인
세계 기업들과

데이터를 공유하며 전 세계
의료시장을 아우르는 연합체를
결성하는 일입니다.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공동의 가치를
바라보며 일한다는 것, 정말 기대되고
설레는 일 아닌가요?"

—
박준상 크레이더스 대표



공감

"제 목표는 스스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분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였어요. 한 분은 닫힌 문을
열어보고 싶다 했고 다른 분은
그늘진 곳에서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건너가고 싶다고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
임종진 공감아이 대표



연결

"세대 간 소통
문제는 앞선 세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고 자서전이 이를
엮어주는 좋은 장치가 된다는 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
정대영·이민섭 몽클스토리 공동대표



이해

"정치는 사회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소셜벤처와 일맥상통합니다.
정치를 바로 알면 우리가 흔히 보는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의 모습이 진짜
정치는 아니란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
혐오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
박신수진 칠리펀트 대표



꿈

"저희 회사는 65세 정년 이런 것 없습니다. 무덤까지 가는 거죠. 저도 꿈을 이루기 위해 창업을 했듯이 함께하는 직원들도 자신의 색깔에 맞는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 박준형 트리플제이엔파트너스 대표



실험

"장애인이든 경력단절 여성이든 우리의 사회적 약자들이 예술적 감각이나 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 정당한 대가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 김민양 그레이프랩 대표



희망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비둘기가 마지막에 물고 오는 게 올리브 가지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혼자가 아니라 모두의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 송명근 올리브유니온 대표



변화

"저는 사업가이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때가 있겠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변화를 꿈꾸며 새로운 가치를 더해 가려고 합니다."

— 장성오 복지유니온 대표



혁신

"당장 몇천만 원의 월 매출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로 근본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가가 문제죠. 성공보다는 결승선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가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 김진성 투파더 대표



성장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과 함께 일하며 성장하는 것을 꿈꿉니다. 유연하고 좋은 직장문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고 싶어요."

— 이다랑 그로잉맘 대표



공동체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어우러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 이선남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교장
이지숙 창업창직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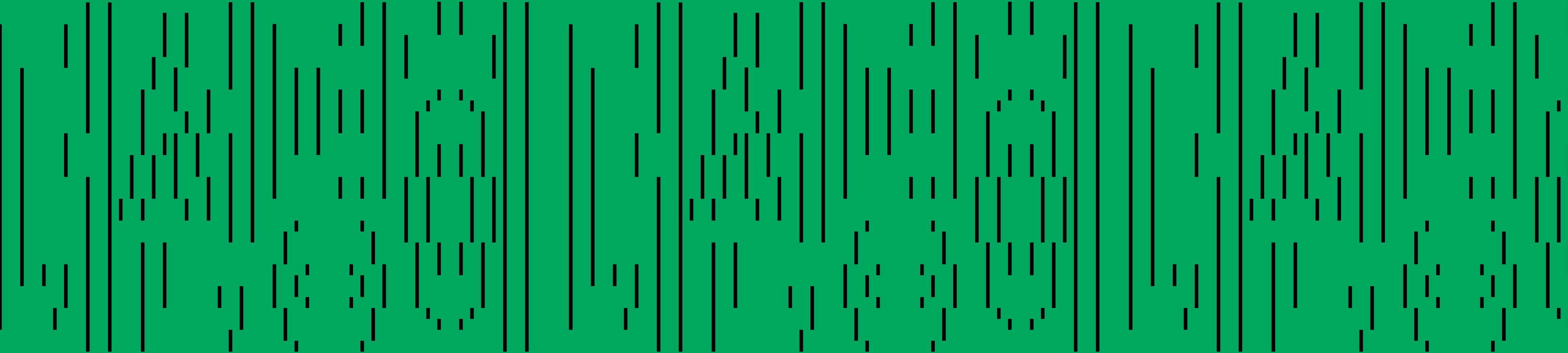
시너지

"지금까지 버텨온 멤버들은 수십 년간

이 업종에 몸담아 온 사람들이라 기술력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젊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만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중호
해방촌니트패션협동조합 이사장

서울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2018년 말 기준 4,337개로 6년 전과 비교하여 기업수, 매출, 고용이 성장했으며,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사회적경제 선도도시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회적경제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삶과 맞닿은 생활문제를 주민참여로 해결하고, 다양한 업종간의 협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비빌언덕을 만들고, 기금과 시민자산화 등으로 공유자원망을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공공시장 확대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가산점 등 지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구매
시장을 적극 활용하되, 상품 경쟁력 등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길러 보세요.”

- 이철중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구매영업지원단 단장

공공조달 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이자 민간 시장 진입을 위한 테스트
마킷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공공구매 영업지원단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상담과 공공기관 대상 영업 지원,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과 수요 발굴, 구매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 공공시장 진입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공공조달에서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저변 확대
-------	--

사업 내용	➤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위탁시장 참여 확대 및 공급력 강화 추진 ➤ 신규 진입기업 발굴 및 진입 전후 진단·모니터링 등을 통한 공급력 강화와 시장 확대 추진 ➤ 공공시장 참여절차 및 준비방법 교육·안내, 구매실적 및 시장분석 등 기존 공공구매영업지원단의 역할 및 물품 제조 분야 편중도 해소
-------	--

사업 성과	➤ 예산서 분석을 통한 사회적경제 신규·잠재시장 발굴 및 정보제공으로 사회책임조달로서의 공공구매 제고 ➤ 찾아가는 공공구매 박람회에서 찾아오는 공공구매방식으로 전환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과의 상담 기회 확대 및 공공구매 매칭 연계 강화 ➤ 교육청과의 정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학교시장 참여 확대
-------	--

추진 실적	달성률
일상상담	↗ 104%
목표 200건 실적 208건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교육	↗ 470%
목표 10회 이상 실적 47회	
공공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 100%
목표 5건 이상 실적 5건	
서울시 산하기관, 투출기관, 민간위탁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제안 및 연계	→ 100%
목표 6건 실적 6건	
구매 가능 품목 정보제공을 통한 구매확대	↗ 110%
목표 100건 이상 실적 110건	
누계 매칭 계약	↗ 101%
목표 80억 실적 81억	
자치구공공구매영업지원단 운영지원	➤ 40%
목표 5개 구 실적 2개 구	

민간시장 판로지원

“공감마켓정 입점은 제품이 단 한 개여도
가능합니다. 택배로 물건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진열부터 판매, 분석, 홍보까지 지원해드리니
언제든 신청해주세요.”

- 신보선 함께일하는세상(주) 유통사업부 부장

센터는 소비자들의 사회적경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소비자군을 비교적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생협 조합원과 일반 소비자로 나누어
접근하고, 서울시 및 공공기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오프라인 거점 매장과
유통채널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채널 입점 전후과정을 관리하고
맞춤 지원함으로써 상품성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 상시 판매 가능한 거점채널 발굴 및 확대 지원
사업 내용	➤ 대시민 접점이 높고 안정적으로 상시 판매가 가능한 사회적경제 거점 채널 발굴 및 확대 ➤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생협과의 연대를 통한 생협 매장 내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 매장 확대 ➤ 민간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한 유통채널 입점 지원
사업 성과	➤ 거점채널 발굴 및 확대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지원 - 대상 거점채널: 서울시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JDC면세점 내 사회적경제 판매장 ➤ 생협과의 연대를 통한 생협 내 숨인숍 사회적경제 판매장(우리동네협동가게) 지속 확대 - 16년 6개 매장 → 17년 14개 매장 → 18년 29개 매장 ➤ 민간기업(롯데홈쇼핑) 사회공헌과 연계한 유통채널 진입장벽 완화 및 입점과정 지원을 통한 기업의 사업경쟁력 강화

추진 실적	달성률
일반유통채널 입점지원 (공감마켓정)	→ 100%
목표 30개 기업 실적 30개 기업	
생협매장 입점지원	↗ 116%
목표 25개 매장 실적 29개 매장	

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

“경영지원 업무는 꼭 필요하지만, 일반 업무와
달리 전문적인 영역이 많아요.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사업을 통해 해결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 김하석 동네발전소 협동조합 대표

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 이슈를
해결하고 성장지원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단계, 지역, 업종, 규모
등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초기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회계·세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일상경영지원 및 인프라망 지원연계 지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사업의 통합 사업공고, 접수, 신청서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통해 지원기업의 접근성, 편의성, 만족도 제고 성장단계, 지역, 업종, 규모 등 사회적경제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함으로써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체계 강화 추가 외부자원 자원 개발 및 연계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토대를 구축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운영과 성장을 위한 기반 확보 전문가의 상시적인 관리를 통해 견실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추진 실적	달성률
컨설팅 지원	↗ 110%
<div>목표 90건</div> <div>실적 96건</div>	
일상경영 지원	↘ 93.95%
<div>목표 215건</div> <div>실적 202건</div>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다른 단지를
비롯해 동, 구 전체로 사업이 확대돼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 김종석 동대문R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서울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공모와 창업 방식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며, 동종-이종 업종 간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전략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 공공·시장·지역·시민사회의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미션별 전략사업
발굴·개발·보급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및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사회적경제 현장 주체의 성장기반을 마련함

1. 공동주택 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용 ▽ 공동주택 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 대상단지 선정 및 사업 추진(9개 단지)
▽ 공동주택 경제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정 개발

사업 성과 ▽ 아파트 생활문제 성격 및 사회적경제 기업과 주민 간 협력 가능 수준에 따라
시범사업 유형을 분석, 유형에 따라 시범 사업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 문제발굴 워크숍, 사업계획 워크숍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 주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기관 등 협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주체
발굴

추진 실적 달성률

사업모델 개발 → 100%

목표 1건
실적 1건

2. 사회적경제 전략업종 성장지원사업

사업 내용	<div><div>↘</div>시민생활 체감도가 높은 전략업종 사회적경제 사업연합 규모화 지원, 집합적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의 특화산업·업종 클러스터 개발, 노동통합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 및 직종개발 등을 전략사업 개발 핵심과제로 선정</div> <div><div>↘</div>이러한 과제 실현을 위해 돌봄 사회서비스 전략모델 개발, 도심제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개발,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형성 공제금융 모델 개발, 생활서비스 지역관리 경제모델 개발, 사회적경제 노동연대 및 일자리 연계 모델 개발 등으로 사업 방향 구체화 및 사업화 토대 마련</div>
사업 성과	<div>1) 전략업종 성장지원 모델개발</div> <div><div>① 돌봄 사회서비스 혁신모델 개발</div><div><div>↘</div>서울시 커뮤니티케어 정책사업 반영: 지역기반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의 성과를 토대로 돌봄서비스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가시화하는 계기 마련</div><div><div>↘</div>‘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 구성 및 운영을 계기로 돌봄 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 도모 및 돌봄자원 발굴·연계를 통해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 마련</div></div> <div><div>② 도심제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개발</div><div><div>↘</div>서울 도심제조업 현황 파악 및 봉제·수제화 업종 협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심제조업 활성화 지원 방향을 도출하여 서울시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제안</div><div><div>↘</div>도심제조업 관련 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 및 지원기관의 수요 및 실태 파악을 통해 향후 가치사슬 구조상 동종 이종 업종 간 협업화 가능성 진단, 협업 주체 발굴 및 조직화를 위한 토대 마련</div></div> <div><div>③ 도심제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개발</div><div><div>↘</div>서울 도심제조업 현황 파악 및 봉제·수제화 업종 협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심제조업 활성화 지원 방향을 도출하여 서울시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제안</div><div><div>↘</div>도심제조업 관련 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 및 지원기관의 수요와 실태 파악을 통해 향후 가치사슬구조상 동종 이종 업종간 협업화 가능성 진단, 협업 주체 발굴 및 조직화를 위한 토대 마련</div></div>

<div><div>④ 생활서비스 지역관리 경제모델</div><div><div>↘</div>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가 주도하는 다양한 경험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 밀착 지원을 통한 주민비즈니스 성장 가능성 확인</div><div><div>↘</div>주민 조직이 위탁 관리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체 공간의 자립 운영, 주민경제사업의 지속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주민역량 강화,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주민경제사업을 행정·경영·회계 등의 측면에서 총괄 지원할 전문기능조직(프랜차이즈의 본부 기능)의 필요성 확인</div><div><div>↘</div>경영지원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유관기관 등 분야별 전문성 결합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공동·협력사업 토대 마련</div></div>	
<div><div>⑤ 사회적경제 노동연대 및 일자리 연계 모델 개발사업</div><div><div>↘</div>사회적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통합형 기업에서 장애인 등 노동취약계층의 가능한 직무 역량에 기초한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div><div><div>↘</div>사회적경제-노동운동 간 연계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공동사업 토대 마련</div><div><div>↘</div>플랫폼경제·노동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재인식 기회 제공 및 향후 대응방향 기초에 대한 공감대 형성</div></div>	
2) 지역상생 연대사업	
<div><div>↘</div>지역 균형발전에 있어 사회적경제 역할 및 주체 간 유기적 연대의 중요성 재확인</div> <div><div>↘</div>지역별 사회적경제 주체 및 지역 리더 간 교류 활성화</div>	
추진 실적	달성률
전략업종 성장지원 모델개발	→ 100%
<div>목표 5건</div> <div>실적 5건</div>	
지역상생 연대사업	→ 100%
<div>목표 3건</div> <div>실적 3건</div>	

자치구 생태계 조성지원

“클러스터 공간을 사회적경제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청년창업팀 등과 함께 활용하니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더 풍성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강선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

센터는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 의제를 발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거점 기반 사업,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사회적경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내 지역에서의 민관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지역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23개 자치구 지원조직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사업 내용	➤ 23개 자치구 센터와 광역 센터 간 역할 분장 및 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지역기반 전략사업의 발굴 및 추진 강화
사업 성과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전략 등에 대한 정보의 원활한 소통과 자치구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역화를 위한 토대 마련 ➤ 23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과 센터 간 협업 및 역할분장을 위한 협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효율성 제고 ➤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과제 등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정책 연계 계기 마련

추진 실적	달성률
자치구 네트워크	↗ 160%
목표 10건	실적 16건
예비특구 현장지원	↗ 127%
목표 22건	실적 28건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역네트워크와 더불어
아기,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당뇨병자, 암환자
등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웃이 되고 싶어요.”

- 황미화 협동조합 좋은이웃 이사장

센터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건강한 마을기업을 창업하고,
기존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설립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반 마을기업 비즈니스 모델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전략사업 개발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밀착 경영지원 강화 대도시형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 조직이 지원사업의 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마을기업과 밀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원 정책 등을 고민하고 설계하는 계기 마련 마을기업 현장의 다양한 이슈(인력 예산 부족 등)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현안을 청년 뉴딜 활동가(인력) 지원, 실행 사업비(예산)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해결하고, 향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초 매뉴얼 마련 지역 주민의 필요와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에 부합하는 공동의 기획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마을기업이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의 발견과 함께 지역 관계망 확장 및 협업의 기초 형성

추진 실적	달성률
지역기반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
레벨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5%
지역관계망 확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3%

공동작업장 조성관리

“2018년은 상암소셜박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의미로 매달 새로운 시도로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박스 내 입주자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어요.”

- 임성열 상암소셜박스 PM

사회적경제의 혁신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실험적인 협동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고,
영역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동작업장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성, 협업 가능성을 제고하며
협력하는 공간입니다.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혁신 주체들의 영역별 전문성과 혁신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업종·분야별 공동의 혁신기반,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상암소셜박스·마포, 기술혁신랩·종로) 조성 지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암소셜박스 운영 안정화 및 지역사회·주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경제 및 공간 활성화 기술혁신랩의 공간과 장비의 공동 활용으로 기술 간 융합, 사업 접목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이용률 제고와 공간 활성화, 운영 안정화
사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공간 지원 및 운영, 관리를 통해 입주기업 간 협업 기반 마련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및 서울시민들의 접근성 제고와 사회적경제 및 공간 관심도 향상 사회적경제 조직에 혁신기술 장비 및 R&D 기초 인프라 지원을 통해 제품 개발비용 절감 및 기술 역량 강화 기술혁신랩의 세운상가 내 이전을 통해 기술·제조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활용도와 기술장인 및 소셜벤처 등과의 협업도 상승

추진 실적	달성률
상암소셜박스 프로그램 운영	↗ 338%
<div> <div>목표 40회</div> <div>실적 135회</div> </div>	
상암소셜박스 사경 행사 개최	↗ 160%
<div> <div>목표 10회</div> <div>실적 16회</div> </div>	
상암소셜박스 운영회의 및 입주기업 네트워킹	—
<div> <div>-</div> <div>실적 73회</div> </div>	
사회적경제 기술혁신랩 공간 이용자	↗ 265%
<div> <div>목표 450명</div> <div>실적 1,193명</div> </div>	
사회적경제 기술혁신랩 프로그램 운영	↗ 275%
<div> <div>목표 40회</div> <div>실적 110회</div> </div>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울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시민사회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반영하고,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김정열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의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라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 기본 방향과 사업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센터는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대표성 수립에 중점을 두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활동 지원
사업 내용	☞ 부문·업종 협의회가 자조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협동화 공모사업 관리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과정 지원
사업 성과	☞ 현장 포괄력 및 협력 수준 제고를 통해 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재정자립의 건전성을 마련하는 기반 확충 ☞ 업종별 연합의 발굴, 지원을 통한 사업의 구조화 및 규모화의 기회 조성 ☞ 다양한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협업 도모

추진 실적	달성률
협동화 공모사업	↗ 125%
목표 4건 실적 5건	
정책 거버넌스 지원	↗ 175%
목표 12건 실적 21건	

아카데미 운영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기대와 편견 또는 선입견이
커뮤니티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였습니다.”

- 아카데미 참여 후기 중에서

센터는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 보급의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우수 인재 육성 및 사회적경제 유입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정보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시민들과 교육기관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형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전문 기관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며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대상별 역량 강화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의 체계적인 사업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전문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들과 교육기관과의 정보접근성 및 소통채널 강화
사업 성과	➤ 경영능력 향상, 소셜미션 수립 및 조직문화 활성화,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운영을 통해 기업의 내부역량 강화 및 기업의 자립성, 사업의 안정성을 지원함 ➤ 학교협동조합 청소년 및 구성원 교육지원,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 및 인재양성 저변 확대에 기여

추진 실적	달성률
전문심화 과정	→ 100%
목표 3 과정 실적 3 과정	
업종·대상별 맞춤형 과정	→ 100%
목표 8 과정 실적 8 과정	

인재양성 연수

“해외연수 지원사업 미국 탐방을 통해 비영리 활동을 더욱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부시장이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 황진솔 더브릿지 대표

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이슈와 관련한 기획연수를 통해 서울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우수성을 확산하고 실질적인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전문 기술을 가진 업종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교류하는 기술연수를 통해 기술 전수와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
사업 내용	➤ 서울의 사회적경제 성과 및 우수성을 확산하고, 실질적인 교류 기회의 확대와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 및 선진 사례 습득을 통해 역량 강화의 기회 마련 ➤ 업종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하여 전문기술 전수 및 벤치마킹을 위한 집중연수 추진
사업 성과	➤ 사업개발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해외기관 협력 및 해외조사, 기술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원 ➤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문 기술 습득을 통한 현장 적용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업종·부문의 역량 강화 기반 마련

추진 실적	달성률
전략기획연수	→ 100%
<div>목표 19명</div> <div>실적 19명</div>	
기술연수	↗ 425%
<div>목표 8명</div> <div>실적 34명</div>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협동조합을 꾸려본 경험으로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터라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세모편지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경 선도 매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 세모편지 만족도 조사 중에서

센터는 서울 사회적경제 우수 사례 발굴 및
이슈 확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변화하는
IT,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형태로 재가공하고
확산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 사례, 사회적경제 전략 이슈
확산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및 사례
공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div><div>↘</div> 사회적경제 정책 정보,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의 가치를 확산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홍보 채널 운영을 통해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지지 기반 확보</div> <div><div>↘</div> 시민 참여를 통한 생활 문제 해결 사례 등 삶의 변화를 만드는 사례 발굴 및 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해 우수 모델 제시, 시민 참여 유도</div>
사업 내용	<div><div>↘</div> 사회적경제 시민 체감도 확산을 위해 언론, 온라인 포털 등 미디어 협력 캠페인 진행: 일상생활 속 소비, 지역변화, 생활의제 해결 등 시민 참여 사례를 다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민 참여 촉진</div>
사업 성과	<div><div>↘</div> 언론 캠페인 등을 통해 대중 소구력이 높은 홍보 채널과의 지속적인 협력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이 높지 않은 새로운 시민들과의 접점 확대</div> <div><div>↘</div> 각종 그래픽, 영상 중심의 콘텐츠 소비 행태에 맞춰 정보 가공 형태, 크기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제작·발행함으로써 메시지 도달률 개선</div>

추진 실적	달성률
온라인포털 운영	→ 100%
<div><div>목표 1식</div><div>실적 1식</div></div>	
뉴스레터 발행	→ 100%
<div><div>목표 21회</div><div>실적 21회</div></div>	
홍보캠페인 추진	→ 100%
<div><div>목표 3식</div><div>실적 3식</div></div>	

기획연구

“여전히 어려운 장애인 고용문제 속에서
정부나 현장에서 생각하는 대안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입니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하면서도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는 통합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 남세현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센터는 연구 사업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도출하며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센터의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거에 기반한
정책 개발은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신뢰를 쌓는 필수
과정입니다.

사업 개요	➤ 정책 이슈, 현안 대응 및 연구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당사자 조직의 연구 참여기회 확대 및 국내외 성공사례 기반 혁신모델 개발, 사회적경제 공동 이슈에 대한 국제협력 연구 등 주제 선정과 수행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추진
사업 내용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전략 및 과제 도출, 사회적경제 혁신 모델 개발, 사회적경제 정책적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 연구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 ➤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장 조직 및 연구기관, 해외 기관과의 국제협력연구 등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참여 기회 확대 및 현장 정책 활용도 제고, 연구 결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사업 성과	➤ 정책이슈, 현안 대응 및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당사자 조직의 연구 참여기회 확대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추진 ➤ 국외 혁신사례, 사회적경제 국제 공동이슈, 해외 연구자네트워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C.I.T.I.E.S와 협력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후속 사업 추진

추진 실적	달성률
정책개발 연구	→ 100%
목표 5건	실적 5건

2018 정산보고

1. 정산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우리는 별도 첨부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정산내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수행한 절차는 서울특별시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게 위탁한 사업비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수행한 것이며 본 보고서는 귀하의 정보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귀하와의 합의에 따라 우리가 수행한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 및 예산과 대비한 집행내역의 적정성(목적 외 사용금지) 검토
 -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 또한 우리는 정산감사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업무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상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수행한 과제의 사업비에 대해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 준거하여 정산한 결과 민간위탁금 사용액 4,774,791,018원 중 불인정금액은 없으며 이자 발생액을 포함한 최종 반납할 금액은 172,092,957원입니다.

상기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우리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귀하와 합의된 절차 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거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검토업무기준에 따른 검토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귀하에 보고할 다른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목적 및 귀하의 정보제공 용도로만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제3자에게 배포되거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세입세출 내역에만 관련된 것이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체 재무제표로 확대될 수 없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한길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승현

2. 세입세출 내역

1) 세입

관	항	목	예산액	집행액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4,922,670,967	4,922,670,960
시요청사업비	시요청사업비	사회적경제공공 구매박람회개최	38,399,000	38,399,000
운영수입	운영수입	입주기관사용료	4,597,680	4,561,450
		대관사용료	1,500,000	663,000
		마포작업장	15,727,200	12,645,615
		기술혁신랩	3,840,000	5,218,000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800,000	884,232
		기타수입	400,000	240,718
		보증금반납	25,000,000	25,000,000
합계			5,012,934,847	5,010,282,975

2) 세출

관	항	목	예산액(배정액)	집행액
민간위탁금	인건비		1,214,856,746	1,067,228,015
		운영비	259,973,010	259,973,010
	제안사업비	판로지원	514,627,000	514,627,000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562,663,711	562,663,711
		전략사업육성	710,000,000	709,749,293
		지역 및 협동기반조성	976,552,000	976,551,496
		인재양성	350,000,000	350,000,000
		홍보 및 연구사업	333,998,493	333,998,493
	시요청사업비	사회적경제공공 구매박람회개최	38,399,000	38,399,000
		사회적경제공공 구매박람회개최		
반납금	반납금	반납금	25,240,718	25,000,000
합계			4,986,310,678	4,838,190,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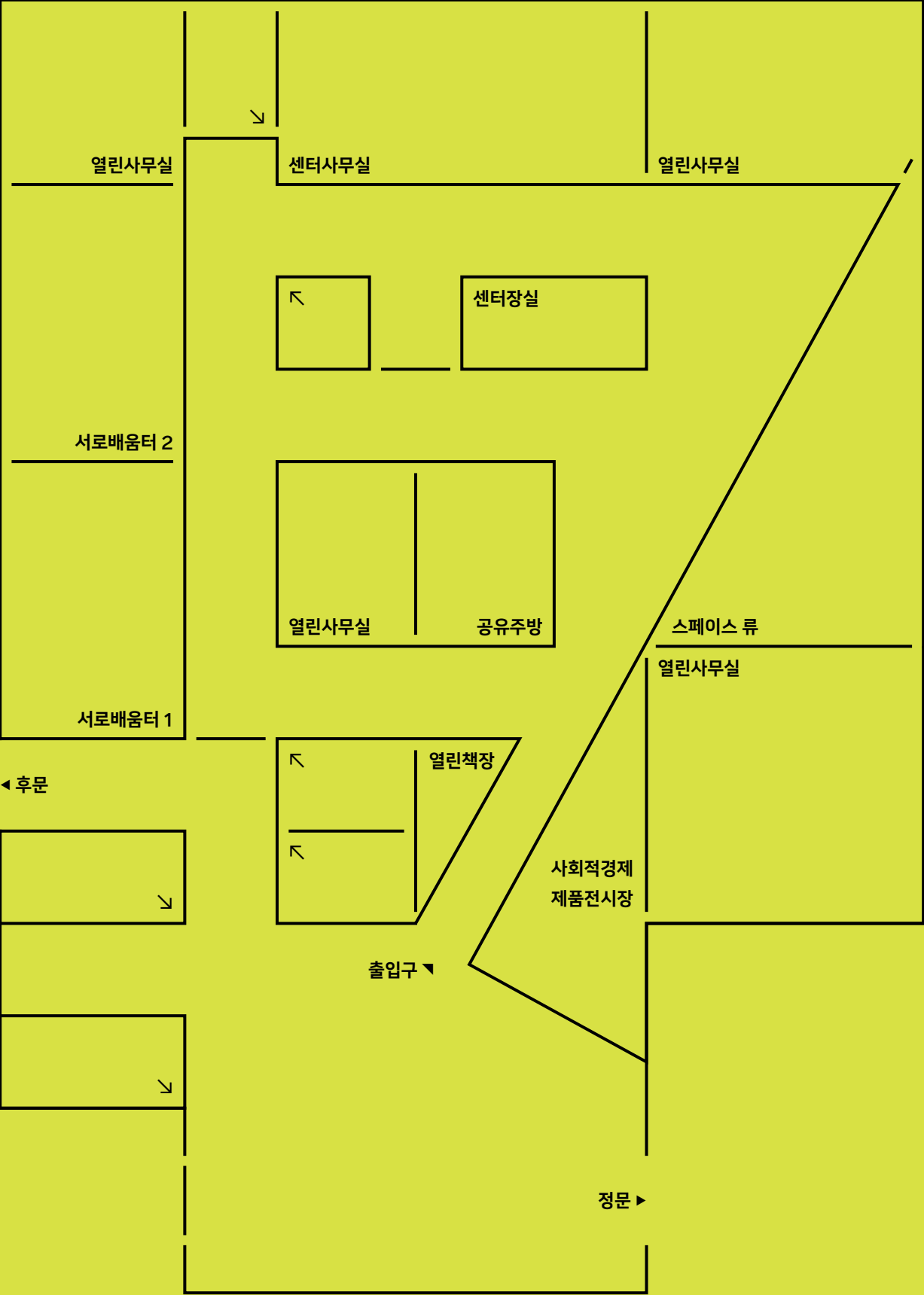
자치구 지원조직 안내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6713-7500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461-9390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32-3792	동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820-9008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02-927-9501	양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2643-1556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02-355-7913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5029-4969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6952-6727	용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318-5200
강북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994-8283	강서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02-2600-6506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3666-9845	서초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02-582-8868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933-7150	종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739-7008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291-2323	중구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070-8670-0039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482-1367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02-6081-7100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2-303-5284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43-1421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969-9936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02-3140-8026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계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내 민간역량 강화와 시민참여 지원을
통해 협동경제의 토대를 조성해가는 자치구
지원조직을 소개합니다.


협동허브 안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공동사무실,
교육·행사장,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장 등으로
이루어진 협동허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 간 교류와 협업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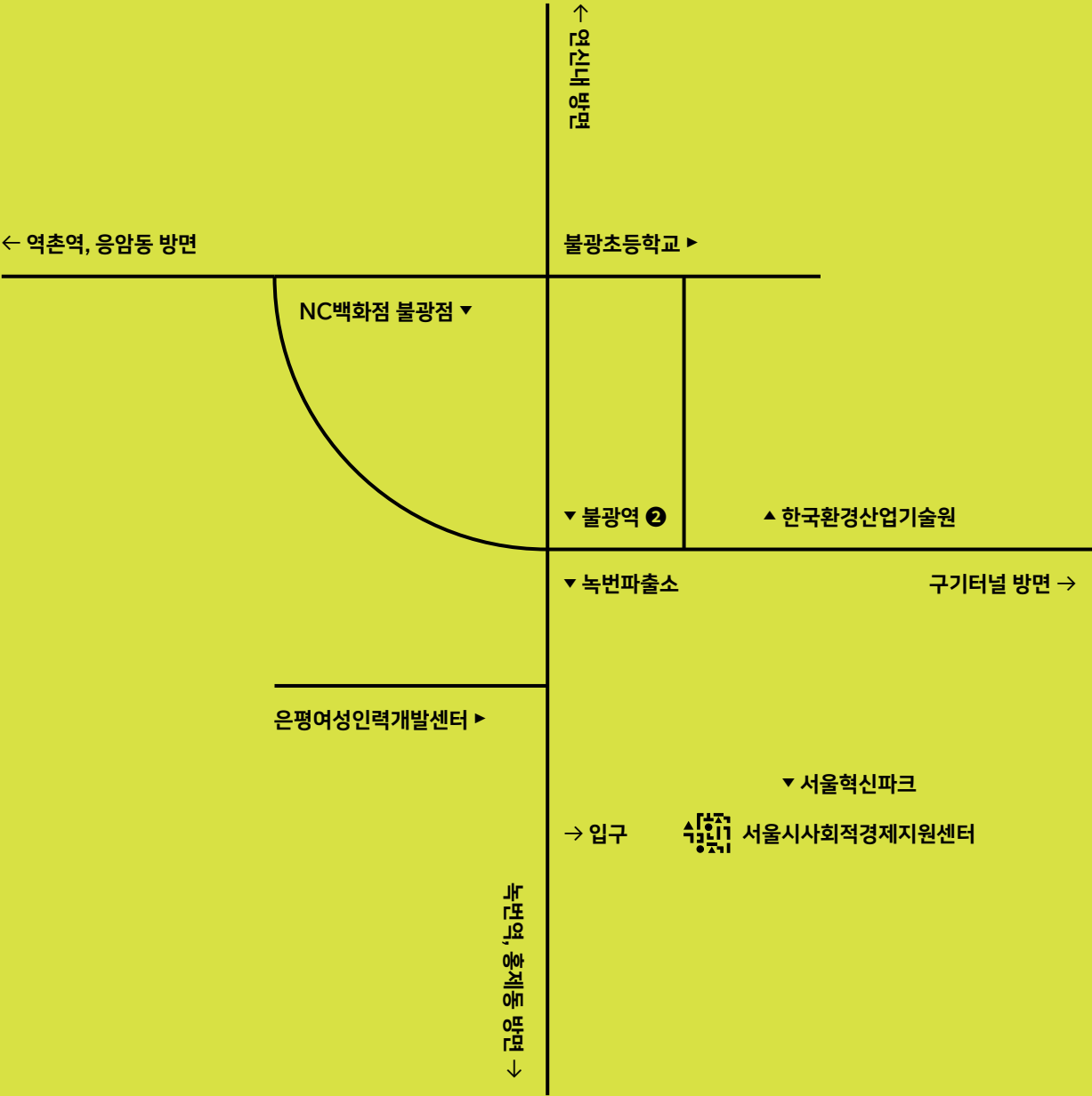


오시는 길

 0337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7)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서
홍제 방향으로 200m 직진 (도보 5분)

 마을 은평 02, 04, 07
지선 7720
간선 471, 701, 703, 704, 705, 706,
720, N37
일반 99, 330, 567
직행 9709, 9710
광역 9703, 9709
공항 6012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울 사회적경제 홍보채널

www.sehub.net

sehub.blog.me

fb.com/Seoulsehub

instagram.com/seoulsecenter

구독하기

다시보기

서울 사회적경제 뉴스레터

<http://goo.gl/xzKSWN>

www.sehub.net - 알림마당 - 뉴스레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비매 품/무료

15060



9 791197 014901

ISBN 979-11-970149-0-1 (PDF)